

선을 넘는 여성들, 공감·연대의 시대 연다

12회 광주여성영화제 9일 개막 '바운더리' 등 총 54편 상영 변영주 감독 등 초청 관객과 토크

여성의 삶을 다룬 영화들을 선보여온 광주여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재희)가 올해 12회를 맞았다.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광주극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 광주독립영화관 등에서 열리는 12회 광주여성영화제의 주제는 '선을 넘는'이며 '선을 넘는 여성들의 연대'로 다양성과 평등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총 54편의 영화(장편 21편, 단편 33편)가 무료로 상영되며 이밖에 토크 프로그램·기획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9일 오후 7시 광주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가수 이랑의 무대가 펼쳐지며 개막작으로 윤가현 감독의 '바운더리'가 상영된다. 2016년 강남역 사건 이후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한 윤가현 감독과 친구들의 4년간의 활동을 기록한 영화로 여성의 몸 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갖는 차별적 시선에 당당히 문제를 제기한다.

개막식 전날인 8일 오후 7시에는 보다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가상 영화관을 준비했다. 'Let's go 광주여성영화제 in 메타버스'라는 프로그램으로 iflan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화 '연기연습', '그들 각자의 영화관', '통제불능'을 상영한 뒤, 각 영화의 감독과 아바타를 통해 소통하는 아바타 GV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특별한 토크 프로그램으로 총 20회, 32명의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광주여성영화제 팟캐스트 채널 '씨네페미클럽'을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하는 '공개방송 씨네페미클럽'에서는 '광주여성영화제 백셀초이스'라는 주제로 변영주 감독과 흥성은 감독이 게스트로 참여한다.

디지털 아동 성 착취를 고발한 영화 '#위아웃' 상영 후에는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보도자이자 최초 신고자인 주적단 불꽃과 함께하는 '추적단 불꽃의 N번방 추적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진행되며 영화 'Out: 이반 검열 두 번째 이야기' 상영 후에는 여성영상집단 '옴' 20주년을 기념해 이영·이혜란 감독, 홍소인 프로듀서가 참여해 '백 투더 레전더



개막작 윤가현 감독의 '바운더리'



변영주 감독

리' 코너를 선보인다. 이 외에도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 '그레타 툰베리', 여성들의 치열한 노동현장을 볼 수 있는 '미싱타는 여자들: 전태일의 누이들',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해진 이

러브 '페미니즘 리부트'를 엿볼 수 있는 '암탉이 울면', '애프터 미투', 팬덤 문화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그 주체가 직접 위로를 건넨다는 점에서 큰 화제를 불러온 '성덕', '무인' 작가로만 알려진 토베 안손의 삶과 사랑을 재조명한 영화인 폐막작 '토베 안손'까지 만나 볼 수 있다.

광주여성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영도 병행한다. 광주여성영화제가 광주의 여성감독들과 함께 제작한 '어쩌다 십년', '엄마가 60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는 길', '결혼별곡' 총 4편으로 광주 여성 감독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또 오월여미니의 노래와 미안마 여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기획전시 '오월의 미안마'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10일부터 14일까지 광주영상



폐막작 '토베 안손'

북한문화관 1층 로비에서 만날 수 있으며 광주부터 흥국, 미안마까지 이어진 아시아 여성들의 민주화 열망을 엿볼 수 있는 자리다.

한편 올해 킨 단편경선에는 첫 공모를 시행한 작년보다 3배 가량 많은 총 526편이 출품됐으며 예심을 통해 12편의 본선 진출작이 선정됐다. 본선 심사 및 관객심사를 통해 킨 작품상(상금 100만원), 킨 특별상(상금 50만원), 킨 관객상(상금 50만원) 총 3개 부문을 시상할 예정이다. 본선 심사위원으로는 영화 '프랑스 여자'의 김희정 감독 등이 위촉됐으며 관객 심사단 30명은 직접 킨 관객상을 선정한다.

전편 무료 관람, 광주여성영화제 홈페이지 참조.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2년 전 둘러 본 서울 동대문디자인 플라자(DDP)는 개관 초기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코로나19로 방문객이 많지 않았지만 알티어, 배움터 등 5개의 시설이 만나는 광장은 예전의 삭막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군데 군데 들어선 파라솔과 벤치에는 혼자서 책을 읽거나 삼삼오오 이야기꽃을 피우는 이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2014년 개관 당시만 해도 '국적불명의 UFO'라는 비난을 받던 곳이 이젠 누적 방문객 1천만 명을 기록한 디자인 발신지가 된 것이다. 사실, 옛 동대문 운동장부지에 들어선 DDP는 이라크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1950-2016)가 설계한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재구성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빈의 MQ(Museums Quartier) 광장에 설치된 엔지스는 지난 2002년 유명건축그룹인 PPAG가 공공디자인 일환으로 제작한 플라스틱 의자다. 사다리꼴의 밑면을 뒤집어 높은 듯한 형태는 한 사람이 누울 정도로 길다. 실제로, 지난날 말 취재차 방문한 MQ 광장에는 푸른색의 엔지스에 앉아 책을 읽거나 누운 채 휴식을 취하는 빈 시민들이 많았다. 말이 의자이지 MQ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조형물 같았다. 엔지스는 그 자체가 시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만남의 광장이었다.

'엔지스'와 수영장

사실 만으로 국제 건축계의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5년 간의 공정을 거친 끝에 모습을 드러낸 DDP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무엇보다 4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축비와 장소성을 고려하지 않은 난해한 디자인이 문제였다. 그도 그럴 것이 2만6000평의 부지에 들어선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은 도심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우주선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DDP가 시민들의 문화놀이터로 변신하게 된 데에는 대중적인 콘텐츠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놓을 수 없다. 특히 지난 2018년 오스트리아 빈과의 문화교류가 발상의 전환을 이끌어 냈다. 지하 광장을 무대로 그해 여름 펼쳐진 '안녕 오스트리아! 안녕 비엔나!' 행사는 DDP의 변신을 이룬 계기가 됐다. 오스트리아의 다양한 예술 공연과 함께 아시아 최초로 DDP 광장에 선보인 빈의 명물 '엔지스'(Enzis)가 시민들의 심터로 큰 인기를 끈 것이다. 사소한 의자 하나로 달라진 광장의 풍경은 '공간의

그 순간, 매년 방문할 때 마다 '황량한 운동장' 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광장이 떠올라 씁쓸했다. 올해로 개관 6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대중과 걸도는 콘텐츠와 운영은 아시아의 문화발전소라는 위상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특히 난해한 건물의 동선과 썰렁하기 짝이 없는 광장은 시민들의 발길을 되돌리게 한다. 지난 2018년 시민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반짝 이벤트로 광장 한복판에 야외 수영장을 오픈했지만, ACC의 이미지를 훼손한 무리수라는 쓴소리를 듣기도 했다.

최근 ACC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늘마당에서 전당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용객들의 편의증대를 위한 첫 걸음인 것 같아 반갑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지는 의문이다. 언제쯤이면 ACC 광장이 DDP와 MQ 못지 않는 도심 속 오아시스 가 될 수 있을까?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위드 코로나...유·스퀘어 문화관 버스킹 공연 늘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서 최근 유·스퀘어 문화관에도 버스킹 공연(시진)이 늘고 있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과 함께 최근 유·스퀘어 문화관에도 버스킹 공연과 관련된 문의와 공연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문턱을 낮추고, 버스킹 밴드들이 터미널 및 문화관 내에

서 편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실내광장, 제1·2야의 무대를 개편한 바 있다. 유·스퀘어 문화관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 기준에 발맞춰, 앞으로도 다양한 버스킹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연을 희망하는 버스킹 밴드나 단체 등은 전화(062-360-8432)로 문의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복지플랫폼' 예술인 버팀목

전남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들의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을 위해 재단 사무실에 개소한 '예술인 복지플랫폼'이 문화예술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남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예술인과 일대일 상담체계를 마련한 플랫폼은 복지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인 예술활동증명 신청 서비스를 실시, 플랫폼 개소 전 742명으로 저조했던 예술 활동 완료 인원이 377% 증가한 현재 2966으로 집계됐다.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대상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창작준비금사업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와 함께 대행 업무를 추진, 지난해 169명 대비 519명이 증가한 688명이 사업에 선정됐다.

이외에도 올해 처음 시행된 'Return of Art' 사업도 성과를 냈다. 'Return of Art' 전시 지원은 지역 내 신진 및 경력단절 예술인들에게 생애 첫 개인전을 지원, 예술활동증명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5명의 작가가 순천과 목포에서 다양한 미술작품을 선보였다. 또 공모를 통해 원로예술인 건강검진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 총 82명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1인 당 30만 원씩 지원했다. 11월에는 예술인의 행정역량을 강화, 중앙 및 재단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기획서 작성, 홍보마케팅 등 온라인을 통한 분야별 실무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